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50호 【루게 제24563호】 주제 103(2014)년 5월 30일 (금요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사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하자

우리 당은 백두의 혁명전통을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나가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혁명과 건설이 심화되고 어려운 과업이 나설수록 혁명전통교양에 큰 힘을 넣고 이 사업을 중단없이 적극적으로 벌여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가 혁명의 난국을 헤쳐 나가자면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혁명전통은 당과 혁명의 역센 뿌리이며 그 대를 이어주는 피줄기이다. 수령의 혁명위업은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전진하게 된다. 혁명전통을 옹호하고 외면하면 사람들의 사상이 변질되고 혁명이 목적을 쫓게 되며 중앙에서는 수령의 위업이 중도반단되게 된다는 것이 사회주의운동력사가 새겨주는 피의 교훈이다.

오늘 우리 혁명대에는 착취와 압박도 받아보지 못하고 피어낸 결전도, 작별하는 총포탄소리도 체험해보지 못한 세 세대들이 주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우리결에 우리 당의 혁명전통이 어떻게 마련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해줄 혁명의 1세대인 항일혁명투사들도 몇몇 남지 않았다. 우리의 세 세대들이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주체혁명의 한걸음도 꺾이지 않게 하자면 결정적으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백두의 기상과 담력,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힘차게 전진시켜나가야 한다. 전체 인민이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간직하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혁명가의 필승의 신념이란 곧 혁명의 수령을 믿고 따르는 마음이다. 당조직들에서는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항일투사들이 지녔던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따라배워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값없는 삶을 빛내어나가도록 하는데 사상교양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두 눈을 잃고도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웨치고 자기의 혀를 씹어 사명부의 안전을 지켜낸 투사들의 불굴의 신념이 우리 인민 모두의 가슴마다에 팍 차넣어져야 한다. 누구나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를 비롯한 혁명전적자들의 구호나 무궁말들을 심장같이 간직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당을 따라 선군혁명적인 만민리갈을 끝까지 걸어서 견결한 혁명가가 되게 하여야 한다.

은 나라에 투철한 조국결사옹위정신이 차넣어지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은 그 어느때보다도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온 나라에 영원한 조신의 정신, 백두의 혁명정신이 세차

하게 내재하게 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백두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하고 배우고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켜 백두의 대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신념은 억척불변이다. 조선인민군 연합부대 지휘관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탐사행군과 모란봉악단의 향당도에 대한 순회공연은 온 나라에 혁명적의 흥대, 계급의 총대를 엮어세게 하는 우리 당의 혁명적의지를 뚜렷한 파사로 된다.

우리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백두의 기상과 담력,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힘차게 전진시켜나가야 한다. 전체 인민이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간직하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혁명가의 필승의 신념이란 곧 혁명의 수령을 믿고 따르는 마음이다. 당조직들에서는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항일투사들이 지녔던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따라배워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값없는 삶을 빛내어나가도록 하는데 사상교양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두 눈을 잃고도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웨치고 자기의 혀를 씹어 사명부의 안전을 지켜낸 투사들의 불굴의 신념이 우리 인민 모두의 가슴마다에 팍 차넣어져야 한다. 누구나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를 비롯한 혁명전적자들의 구호나 무궁말들을 심장같이 간직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당을 따라 선군혁명적인 만민리갈을 끝까지 걸어서 견결한 혁명가가 되게 하여야 한다.

은 나라에 투철한 조국결사옹위정신이 차넣어지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은 그 어느때보다도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온 나라에 영원한 조신의 정신, 백두의 혁명정신이 세차

하게 내재하게 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백두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하고 배우고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켜 백두의 대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신념은 억척불변이다. 조선인민군 연합부대 지휘관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탐사행군과 모란봉악단의 향당도에 대한 순회공연은 온 나라에 혁명적의 흥대, 계급의 총대를 엮어세게 하는 우리 당의 혁명적의지를 뚜렷한 파사로 된다.

우리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백두의 기상과 담력,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힘차게 전진시켜나가야 한다. 전체 인민이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간직하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혁명가의 필승의 신념이란 곧 혁명의 수령을 믿고 따르는 마음이다. 당조직들에서는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항일투사들이 지녔던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따라배워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값없는 삶을 빛내어나가도록 하는데 사상교양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두 눈을 잃고도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웨치고 자기의 혀를 씹어 사명부의 안전을 지켜낸 투사들의 불굴의 신념이 우리 인민 모두의 가슴마다에 팍 차넣어져야 한다. 누구나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를 비롯한 혁명전적자들의 구호나 무궁말들을 심장같이 간직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당을 따라 선군혁명적인 만민리갈을 끝까지 걸어서 견결한 혁명가가 되게 하여야 한다.

은 나라에 투철한 조국결사옹위정신이 차넣어지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은 그 어느때보다도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온 나라에 영원한 조신의 정신, 백두의 혁명정신이 세차

## 국방공업 발전을 위하여 쌀으신 업적 길이 빛내이리

군자혁명사적지를 수많은 군인들과 근로자들이 참관  
위대한 선군명장을 높이 모시어 굳건한 우리의 국력에 대한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지금 군자혁명사적지로는 수많은 근로자들이 찾아오고있다.

요즘 군자혁명사적지를 찾고있는 참관자들은 더욱 늘어나고있다. 종합자료에 의하면 군자혁명사적지 개관된 주제 64(1975)년부터 지금까지 800만명의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이곳을 참관하였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의 국력강화에 바치신 위대한 대인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정신을 후손만대 길이 빛내어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의 발현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주제 64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국방공업의 역사는 수령님과 장군님의 혁명력사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가 지금까지 마련한 국방공업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군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낸 조국해방전쟁시기 여러차례 찾아오신 군공업을 전시기생사투쟁으로 힘있게

##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당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에 즈음하여 12일 기념예배에서 강연하시며 말씀하시였다. 강연회장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선군혁명명도적의 당령도사를 뛰어난 사신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이룩한 성과들을 소개하는 사신들이 전시되어있었다. 강연회에는 대학의 교직원, 학생 등이 참가하였다. 기념예배대학 미술학부 학부장은 **《조선로동당을 불멸의 당으로 강화**

# 인민의 리상과 꿈을 실현하는 보람찬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을 창조하자

조선속도창조투쟁의 세찬 열풍속에 청년강계단식발전소건설사업이 하루가 다르게 번모되어가고있다.

최근 9호발전소건설이 청천강을 가로질러 제1면적 전구간에 걸쳐 속주쳐왔으며 최근 8호발전소의 발전기실은 최리설조립이 끝나 자기의 웅장한 모습을 확연히 드러내었다. 최근 5호, 4호, 10호, 12호발전소의 발전기실도 수문기동공크리트리치기도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있다.

현장지휘부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25일까지 건설중인 5월 공크리트리치, 성로, 굴착작이 모두 넘쳐 수행되었다. 특히 각 리단들에서 연제와 발전기실, 물고기길, 방수로, 옹벽 등에 대한 6만 2000여㎡의 공크리트리치를 진행함으로써 올해에 들어와 최고기록을 세웠다.

지난 25일 밤 12시, 5월 공사계획을 넘쳐 수행한 평양시, 철도성, 황해남도, 남포시, 평안남도리단의 돌격대원들과 대천수력발전건설사업소, 금야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전투원들이 평양하늘을 우러러 경애하는 원수님께 올리는 승리의 보고가 청천강변에 오도도록 메이러렸다.

## 연제와 발전기실공사에서 현일 높은 실적 기록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에서 5월 공사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대건설전투장들에서 창조되는 새로운 건설속도와 시대정신은 천만민을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영웅적투쟁과 위훈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합니다.》**

현장지휘부의 일꾼들은 장마철전까지의 기간에 공사실적을 부쩍 끌어올려야 높이 세운 올해공사계획을 무조건 수행할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이달에 전투조치를 혁명적으로 해나갔다.

지난 5월 중순에도 현장지휘부와 각 리단의 책임일꾼들이 철출하여 자동차수송전투를 벌려 배수시설의 파철을 수문연양기생산기지에 보내주고 길로 양복 수배리길을 또 달려 주요 건설수배리들을 실어와 돌격대원들의 전투열의를 비상히 높여주었다.

평양시리단의 일꾼들과 돌격대원들이 최근 9호발전소건설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며 제일 앞장에서 내달리었다.

장마철전으로 연제공사를 기본적으로 완성할 높은 목표를 세우는데 맞게 이곳 일꾼들은 8개의 수문기동과 수배리에 달하는 최안용벽공크리트리치기에 리단 단의 화력을 집중하였다. 수문기동공크리트리치를 맡은 중구역, 대성구역, 룡성구역, 보통강구역대대의 돌격대원들은 혼란물문만에 스킵프를 적극 리용하면서 대대별사회주의경쟁의 불길들을 세차게 지퍼올렸다. 그리하여 초기에는 4일에 한개 단씩 타임하던것을 5월 중순부터는 3일에 2개 단씩 올려세워 25일까지 8개의 수문기동공조공사를 빛나게 결속하였다.

최안용벽공사를 맡은 동대원구역, 강동구역대대의 돌격대원들도 헌신적투쟁을 벌려 전구간에 걸쳐 옹벽을 세웠다. 그리하여 리단 단은 5월에 공사계획의 1.5배에 달하는 9000㎡의 공크리트리치를 진행하여 지휘부적인 사회주의경쟁에서 우승의 영예를 지니었다.

최근 5호발전소건설을 맡은 황해남도리단의 일리리리에서도 세 기록, 새 기준이 창조되었다. 리단의 지휘관들은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게 대량별, 공점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날 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도록 공사지휘를 잘해나갔다.

벽성구역대대의 돌격대원들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수문기동의 우부본 공크리트리치기에서 현일 성과를 올려 여러개의 수문기동공조를 완성하였다. 신철, 재명 구역대대의 돌격대원들은 결사판철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발전기실음막타입준비에서 혁신을 일으키었다.

평안남도리단의 돌격대원들이 발전기실공사에 힘을 집중하면서 전반적인 공사에서 높은 속도를 보장하였다. 공사장적으로 제일먼저 끝은 판, 원추판에 대한 공크리트리치를 진행한 이곳 돌격대원들은 기술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가며 복잡하고 품이 많이 드는 뿔모실을 비롯하여 발전기실의 여러 부분에 대한

공크리트리치를 다그치었다. 철도성리단의 돌격대원들은 10호발전소 발전기실공사에서 리량을 집중하여 설비조립순차에 따라 긴장한 전투를 벌려 8000㎡의 공크리트리치 작업을 세 차례 세웠다. 남포시리단, 태천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돌격대원들도 사

설사업소의 돌격대원들도 사 회주의경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리며 12호발전소건설과 발전기실공사를 힘차게 내

몰았다. 최근 4호발전소건설을 맡은 금야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전투원들은 모든 시공과정마다에서 기계수단들을 대담하게 리용하기 위한 힘찬 전투를 벌려 일정에 계획수행에서 모범을 보였었다.

본사기자 리병준

## 알곡 정보당 10t 생산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

모내기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고있는 각지 농촌의 령도업적단위들에서

각지 농촌의 령도업적단위들에서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함주군 동봉, 태천군 은흥,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과 만경대구역 만경대남새전분농장, 재령군 삼지동, 풍천군 신안협동농장에서 모내기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는 사회주의 농촌대개발표 50畝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농사를 잘 짓어 당과 국가가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올릴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코나큰 은쟁이 모내기전투의 보람을 향하여 열의와 열정을 높여 농촌전투의 열의를 높이고 있는 조국의 운명, 혁명의 승패와 관련된 중요한 정치적문제라는것을 심장에 새기고 모내기 전투에서 애국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나갔다.

태천군 동봉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모내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렸다. 동해안농사에서 본보기를 창조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언제나 심장같이 새기고 모내기를 일찍이 매일 높여온 그들은 25일까지 기본면적의 모내기를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태천군 은흥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도 한드레미를 여러차례나 찾아오시어 은빛 사자를 찾아오시어

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모내기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고있는 각지 농촌의 령도업적단위들에서

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모내기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고있는 각지 농촌의 령도업적단위들에서

모내기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고있는 각지 농촌의 령도업적단위들에서

사의 각요를 안고 펼쳐나선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모내는 기계들의 만가들을 보장하기 위해 이같이 열의있게 모내기를 벌리고있다.

사리원시 미곡, 평원군 원화, 안악군 오곡, 문덕군 립석, 배천군 수원, 연안군 오현협동농장을 비롯한 많은 령도업적단위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뜻깊은 올해에 당과 국가가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올릴수 있도록 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려 속을 끝내나갔다.

본사기자 윤용호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 평양시리단에서— 본사기자 찍음

## 강철 전선을 적극 지원

전국각지에서 철강재증산투쟁으로 늘어난 강철전선에 더 많은 파철을 보내주기 위한 투쟁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철강재생산을 추켜세우기 위하여서는 전국이 강철전선을 힘있게 지원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함경남도에서 파철모으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리고있다. 특히 단천시, 신포시와 고원군, 리원군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불타는 애국의 마음을 안고 파철원천을 적극 탐구동원하여 많은 량의 파철을 모아들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철강재증산투쟁에 펼쳐나선 성전적강원기업소로 동계공급을 힘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함경북도에서는 새해 첫달부터 많은 량의 파철을 모아 보내주었다. 특히 김책시, 회현시, 온성군이 파철모으기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원수님께서 평양시리단의 일꾼들이 한사팔방이 펼쳐나선 파철, 월별파철모으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본사기자 리철욱

전국각지에서 철강재증산투쟁으로 늘어난 강철전선에 더 많은 파철을 보내주기 위한 투쟁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철강재생산을 추켜세우기 위하여서는 전국이 강철전선을 힘있게 지원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함경남도에서 파철모으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리고있다. 특히 단천시, 신포시와 고원군, 리원군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불타는 애국의 마음을 안고 파철원천을 적극 탐구동원하여 많은 량의 파철을 모아들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철강재증산투쟁에 펼쳐나선 성전적강원기업소로 동계공급을 힘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함경북도에서는 새해 첫달부터 많은 량의 파철을 모아 보내주었다. 특히 김책시, 회현시, 온성군이 파철모으기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원수님께서 평양시리단의 일꾼들이 한사팔방이 펼쳐나선 파철, 월별파철모으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본사기자 리철욱











# 인민의 조국에 지펴주신 영원한 애국의 불길

## 총서 《불멸의 역사》 장편소설 《새 나라》에 대하여

애국은 인간의 사상감정과 정신도 덕높이를 결정하는 시금석이라 나라의 부강번영을 담보하는 힘이다. 그러나 인민의 열렬한 애국심, 무궁무진한 애국의 힘은 결코 저절로 생겨나지도 발휘되지도 않는다.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수령을 모신 인민만이 애국의 정신력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삶의 타진인 조국을 만방에 빛내일 수 있다.

이것은 수년의 역사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고 우리 조국과 인민의 존엄을 민족사상 최고의 경지에 올려놓은 주체 100년대와 김정일애국주의가 시대정신으로 끓어치는 내나라의 오늘이 새겨주는 진리이다.

위대한 력사의 진리를 반영한 혁명적인 문학작품은 시대의 화불과 같다. 총서 《불멸의 역사》 장편소설 《새 나라》(윤경찬 작)는 해방된 내 조국강산에 세기를 밝히게 될 애국의 불길이 어떻게 타오르게 되었는가를 깊이있게 형상함으로써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미약의 불비함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는 천만군민의 투쟁을 고구수동화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수령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 있다. 혁명영웅을 신념으로 간직하시고 언제나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시력을 발동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인민의 요구와 이익에 맞게 풀어나가시었다.》

총서 《불멸의 역사》 장편소설 《새 나라》는 어버이수령님께서 평양시민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주던 일한의 강을 행복의 강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보통개수공사를 직접 발기하시고 해방전 착취와

억압속에서 신음하던 인민의 애국적 열의와 단결된 힘으로 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내도록 이끌어주신 력사적 사실을 반영하고있다.

장편소설 《새 나라》가 거둔 사상예술적성과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대자연개조공사인 보통개수공사를 애국과 건국이라는 사회정치적인 문제로 승화시키고 그 어느 위인도 지닌적 없는 이인위천의 숭고한 리념을 새 나라의 만민초석으로 다져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형상을 창조한것이다.

해방된 이듬해 봄 토지개혁이 실시되어 온 나라가 환희로 들끓던 어느날 어버이수령님께서 보통개수공사의 토성령에 사는 한 농민이 농촌위원회를 찾아와 분여받은 땅을 바꾸어 달라고 하였다든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신다. 거창하게 흐르는 시대의 흐름에 비하면 때 너무도 작은 일이었다.

하지만 어버이수령님께서 그 사실에서 지난날 해를 두고 큰분패를 입어온 토성령의 농민들과 주민들이 해방된 오늘에도 품고있는 근심과 걱정을 헤아려보시고 이미전부터 무르익어오던 보통개수공사를 진행할것을 결심하신다.

당시 나라의 경제형편이 많은 당력과 방대한 물자가 투입되어야 하는 대자연개조공사를 감당해낼수 있는 조건에서 어버이수령님께서 파견 그 누구를 믿으시었던가.

우리 수령님께서 장군님께서 편리 내리시던 밤술뜨는이들은 떠나없이 보통개수공사에 떨쳐나설것이라고 말씀하시던 토성령인민들을 생각하시면서 일제가 무참히 파괴해놓은 공장, 기업소를 제법으로 복

구한 로동계급을 믿으시었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의 이인위천의 숭고한 뜻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실감으로 절감한 일군보다 모르는 일군이 더 많았던 건국의 초행길이었다.

어떤 일군은 협의회장으로서까지 어버이수령님께 보통개수공사로부러 정치적인 문제를 승화시키고 그 어느 위인도 지닌적 없는 이인위천의 숭고한 리념을 새 나라의 만민초석으로 다져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형상을 창조한것이다.

그때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 그 사실에서 지난날 해를 두고 큰분패를 입어온 토성령의 농민들과 주민들이 해방된 오늘에도 품고있는 근심과 걱정을 헤아려보시고 이미전부터 무르익어오던 보통개수공사를 진행할것을 결심하신다.

당시 나라의 경제형편이 많은 당력과 방대한 물자가 투입되어야 하는 대자연개조공사를 감당해낼수 있는 조건에서 어버이수령님께서 파견 그 누구를 믿으시었던가.

우리 수령님께서 장군님께서 편리 내리시던 밤술뜨는이들은 떠나없이 보통개수공사에 떨쳐나설것이라고 말씀하시던 토성령인민들을 생각하시면서 일제가 무참히 파괴해놓은 공장, 기업소를 제법으로 복

구한 로동계급을 믿으시었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의 이인위천의 숭고한 뜻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실감으로 절감한 일군보다 모르는 일군이 더 많았던 건국의 초행길이었다.

어떤 일군은 협의회장으로서까지 어버이수령님께 보통개수공사로부러 정치적인 문제를 승화시키고 그 어느 위인도 지닌적 없는 이인위천의 숭고한 리념을 새 나라의 만민초석으로 다져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형상을 창조한것이다.

그때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 그 사실에서 지난날 해를 두고 큰분패를 입어온 토성령의 농민들과 주민들이 해방된 오늘에도 품고있는 근심과 걱정을 헤아려보시고 이미전부터 무르익어오던 보통개수공사를 진행할것을 결심하신다.

당시 나라의 경제형편이 많은 당력과 방대한 물자가 투입되어야 하는 대자연개조공사를 감당해낼수 있는 조건에서 어버이수령님께서 파견 그 누구를 믿으시었던가.

우리 수령님께서 장군님께서 편리 내리시던 밤술뜨는이들은 떠나없이 보통개수공사에 떨쳐나설것이라고 말씀하시던 토성령인민들을 생각하시면서 일제가 무참히 파괴해놓은 공장, 기업소를 제법으로 복

구한 로동계급을 믿으시었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의 이인위천의 숭고한 뜻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실감으로 절감한 일군보다 모르는 일군이 더 많았던 건국의 초행길이었다.

어떤 일군은 협의회장으로서까지 어버이수령님께 보통개수공사로부러 정치적인 문제를 승화시키고 그 어느 위인도 지닌적 없는 이인위천의 숭고한 리념을 새 나라의 만민초석으로 다져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형상을 창조한것이다.

그때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 그 사실에서 지난날 해를 두고 큰분패를 입어온 토성령의 농민들과 주민들이 해방된 오늘에도 품고있는 근심과 걱정을 헤아려보시고 이미전부터 무르익어오던 보통개수공사를 진행할것을 결심하신다.

당시 나라의 경제형편이 많은 당력과 방대한 물자가 투입되어야 하는 대자연개조공사를 감당해낼수 있는 조건에서 어버이수령님께서 파견 그 누구를 믿으시었던가.

우리 수령님께서 장군님께서 편리 내리시던 밤술뜨는이들은 떠나없이 보통개수공사에 떨쳐나설것이라고 말씀하시던 토성령인민들을 생각하시면서 일제가 무참히 파괴해놓은 공장, 기업소를 제법으로 복

구한 로동계급을 믿으시었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의 이인위천의 숭고한 뜻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실감으로 절감한 일군보다 모르는 일군이 더 많았던 건국의 초행길이었다.

어떤 일군은 협의회장으로서까지 어버이수령님께 보통개수공사로부러 정치적인 문제를 승화시키고 그 어느 위인도 지닌적 없는 이인위천의 숭고한 리념을 새 나라의 만민초석으로 다져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형상을 창조한것이다.

그때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 그 사실에서 지난날 해를 두고 큰분패를 입어온 토성령의 농민들과 주민들이 해방된 오늘에도 품고있는 근심과 걱정을 헤아려보시고 이미전부터 무르익어오던 보통개수공사를 진행할것을 결심하신다.

당시 나라의 경제형편이 많은 당력과 방대한 물자가 투입되어야 하는 대자연개조공사를 감당해낼수 있는 조건에서 어버이수령님께서 파견 그 누구를 믿으시었던가.

우리 수령님께서 장군님께서 편리 내리시던 밤술뜨는이들은 떠나없이 보통개수공사에 떨쳐나설것이라고 말씀하시던 토성령인민들을 생각하시면서 일제가 무참히 파괴해놓은 공장, 기업소를 제법으로 복

하고도 비열한 책동으로 우리의 강력한 선전선동의 위력으로 짓궂게버틸때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신다. 하여 애국의 열기가 차넘치는 공사소식이 신문에서 실리고 공사장 곳곳에 기발과 구호판, 경쟁도표판이 세워져 공사장에는 전투적분위기가 차고넘치었으며 창작가들과 예술인들이 공사장에 나와 시와 노래도 짓고 예술공연도 진행하여 온 건설장이 사상적으로 꽃피어지게 된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몸소 어르신 위대한 장군님과 함께 보통개수공사장에 나오셔서 애국헌신의 자욱을 새기실뿐 아니라 녀성들도 어버이수령님의 건국위업을 실현해서 시대앞에 지닌 임무를 다하도록 이끌어주신다.

어버이수령님의 혁명한 령도가 있고 애국의 불길을 활활 지펴주는 사상공세로 하여 지난날 천대와 멸시를 속셈처럼 여기던 인민들이 불과 55일만에 대자연개조공사인 보통개수공사를 완공하는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게 되는데 있다.

절세의 애국자를 모신 인민은 무궁무진한 애국의 정신력으로 력사의 기적을 창조한다는 총서 《불멸의 역사》 장편소설 《새 나라》의 사상적내용은 오늘날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에 대한 예술적반영이기도 하다.

김정일애국주의의 최고현자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 천만군민은 영웅적인 김일성동지를 받들어 반만년민족사에 처음으로 되는 인민의 위업을 일떠세운 선렬들처럼 이 땅에 기여이 강성국가의 눈부신 역사를 펼쳐계실것이며 그 위대한 력사를 조국청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기게 될것이다.

차 수



세로지구 축산기지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떨쳐갈 결의에 넘쳐있는 국가과학원력대원들

## 인민배우 한진섭생일 100돐 회고모임 진행

인민배우 한진섭의 생일 100돐을 맞아 회고모임이 29일 국립연극극장에서 진행되었다. 연극예술부문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 출판보도부문 기자, 편집진들, 한진섭의 유가족과 연구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리지영 조선연극인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였다. 그는 연극예술부문의 창작가, 예술인들, 출판보도부문 기자, 편집진들, 한진섭의 유가족과 연구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전 자기의 재능을 꽃피게 해주신 인민배우 한진섭의 생일 100돐을 잊지 않았고 뜻깊은 회고모임을 진행하도록 은정을 베풀어주시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세계금연의 날에 즈음한 행사 가 29일 인민대학습당에서 있었다.

행사에는 보건부문과 성, 중앙기관, 사회단체일군들, 관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주조 세계보건기구대표부비롯한 국제기구대표부성원들, 수리아에 가는 최고인민회의대표단 출발

수리아에 가는 최고인민회의 대표단원 김관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중국을 방문 하였던 조선기자동맹대표단 귀국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들 도착

결을 손잡아 이끌어주셨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그가 출연한 예술영화 《유격대의 오형제》, 혁명연극 《성황당》, 《혈분만국화》를 지도해 주시면서 화술이 특색있고 연기술이 능하다는 분에 넘치는 치하를 해주셨다.

연극예술발전에 뚜렷한 자욱을 새겨온 한진섭의 공로를 헤아리시고 그를 자기의 재능으로 연합합이 당을 만든 연극예술의 인물로 높이 내세워주시었던 그의 유해를 애국렬사릉에 안치하도록 해주셨다.

한진섭은 혁명전사의 삶을 빛내여주고 배를 두고 잊지 못할 은정을 베풀어주시신 절세위인들의 자애로운 품이 있어 한진섭의 생은 오늘날도 영생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인민배우 한진섭이 당의 연극혁명방향을 높이 받들고 5대혁명연극창조에서 특출한 공로를 세우며 높은 신력과 지칠줄 모르는 열정

으로 명연기를 창조하여 인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온데 대하여 그와 함께 예술활동을 하였던 국립연극단 배우 김춘남, 화술강사들인 김춘범, 류경심, 연출실장 장한국이 이야기 하였다.

국립연극단 배우 김춘범은 전세대의 예술인들이 지녔던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숭고한 정신세계, 모란봉악단 창작가, 예술인들의 혁명적인 창작창조기쁨을 따라배워 명작작품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공로도를 충직하게 받들기 위한 투쟁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갈것이라고 강조 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9차 전국에 걸쳐있는 합작장사들을 보내주신 력사적사건에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새 세대가 주체문화예술의 찬란한 개화기를 펼쳐나가는데 이바지할 열의에 넘쳐있었다.

장경희 서기국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최고인민회의대표단이 29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중국을 방문 하였던 조선기자동맹 대표단 귀국

으로 명연기를 창조하여 인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온데 대하여 그와 함께 예술활동을 하였던 국립연극단 배우 김춘남, 화술강사들인 김춘범, 류경심, 연출실장 장한국이 이야기 하였다.

국립연극단 배우 김춘범은 전세대의 예술인들이 지녔던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숭고한 정신세계, 모란봉악단 창작가, 예술인들의 혁명적인 창작창조기쁨을 따라배워 명작작품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공로도를 충직하게 받들기 위한 투쟁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갈것이라고 강조 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9차 전국에 걸쳐있는 합작장사들을 보내주신 력사적사건에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새 세대가 주체문화예술의 찬란한 개화기를 펼쳐나가는데 이바지할 열의에 넘쳐있었다.

장경희 서기국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최고인민회의대표단이 29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중국을 방문 하였던 조선기자동맹 대표단 귀국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들 도착

수리아에 가는 최고인민회의 대표단원 김관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중국을 방문 하였던 조선기자동맹 대표단 귀국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들 도착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첫 쏘련공식방문 65돐과 1984년 쏘련공식방문 30돐에 즈음한 모스크바 사진전시회 《천선의 력사》 개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첫 쏘련공식방문 65돐과 1984년 쏘련공식방문 30돐에 즈음한 모스크바 사진전시회 《천선의 력사》가 로씨야 연방공산당의 주최로 27일 국립중앙로씨야연대사박물관에서 개막되었다.

전시회장전면에는 붉은색바탕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첫 쏘련공식방문 65돐과 1984년 쏘련공식방문 30돐에 즈음한 모스크바 사진전시회 《천선의 력사》》라고 쓴 글자들이 걸려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1984년 쏘련공식방문을 계기로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에 보내신 선물이 전시되어 있었다.

사진전시회장에는 조로친선관계를 마련하고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 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국의 고전적조각들을 비롯한 우리 나라 도시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날을 따라 변모되는 선공로도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 우리 인민의 재능이 깃든 수공업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전시회개막식에는 로씨야국가의 과학기술위원회 1부위원장인 노비코프 로씨야연방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국가회의 국제문제위원회 1부위원장인 칼라슈니코프 로씨야연방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국가회의 경제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인 파이썬에 로씨야연방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외무성, 국방성, 로씨야연방 및 통일당, 로씨야자유민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연방, 로씨야 21세기관련학단을 비롯한 정부, 정당, 단체인사들이 참가하였다.

김일성 동지께서 공화국창건 후 쏘련을 방문하시어 쓰촨판과 상봉하신것은 두 나라사이의 위대한 친선관계의 기초로 되었다.

로씨야인민은 전시된 사진 문헌들을 통하여 로조친선관계 발전에 쌓아올린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업적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될것이다. 김일성 동지께서 우리 나라 투쟁전선에서 전시회장을 열렬히 축하하면서 전시회 성과적보장을 위한 로씨야연방공산당 중앙위원회 노력에 사의를 표하였다.

그는 력사적인 사진문헌들은 조로친선의 튼튼한 기초와 훌륭한 전통을 마련하여주시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영원불멸한 업적을 생생하게 보여주고있다고 강조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로친선관계의 강화발전에서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계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두 나라사이에서 채택된 공동문헌들의 정신에 맞게 조로 친선관계를 증진하여 확대강화해나가기라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방침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조일정부간 회담결과와 관련한 보도

【평양 5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일정부간회담이 2014년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스페리에 스토클홀름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송일호 외무성 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인, 일본측에서는 이하라 총재와 무성 아사이오 세안주국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조일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문제를 해결하며 국교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진정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일본측은 1945년을 전후로 하여 공화국내에서 사탕한 일본인의 유물문제와 잔류일본인, 일본인배우자, 랍치피해자 및 행방불명자를 포함한 모든 일본인에 대한 조사를 우리측에 요청하였다.

우리측은 일본측이 지난 시기 랍치피해자와 관련하여 기울여온 공화국의 노력을 인정함에 대하여 평가하면서

조치를 해체하며 인도주의목적의 공화국적선박의 일본인항구지지를 해체하기로 하였다.

일본측은 적절한 시기에 공화국에 대한 인도주의지원을 실시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일본측은 조일평양선언에 따라 제일 조선인들의 지위문제를 성실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일본측은 일본인유물문제와 관련하여 공화국이 유가족들의 성과보상실현에 협력함에 대하여 평가하고 공화국내에 방치되어있는 일본인의 유물 및 묘지처리, 성과보상과 관련하여 공화국측과 계속 협의의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일본측은 공화국측이 제기한 지난 시기의 조선인행방불명자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 실시하며 공화국측과 협의하면서 해당 대책을 세우기로 하였다.

일본측은 적절한 시기에 공화국에 대한 인도주의지원을 실시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일본측은 조일평양선언에 따라 제일 조선인들의 지위문제를 성실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일본측은 일본인유물문제와 관련하여 공화국이 유가족들의 성과보상실현에 협력함에 대하여 평가하고 공화국내에 방치되어있는 일본인의 유물 및 묘지처리, 성과보상과 관련하여 공화국측과 계속 협의의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일본측은 공화국측이 제기한 지난 시기의 조선인행방불명자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 실시하며 공화국측과 협의하면서 해당 대책을 세우기로 하였다.

우리측은 일본인의 유물 및 묘지와

개막식에서는 여러 인사들이 발언하였다. 그들은 전시된 사진문헌들은 두 나라사이의 오랜 친선의 유대를 보여주시는것으로서 두 나라 인민들에게 있어서 매우 귀중한 력사적재부로 된다고 하면서 위대한 대원수들의 불멸의 업적을 찬송하였다.

그들은 제국주의의 알살책동속에서 자주성을 고수해나가는 산모범을 보여주고있는 조로친선의 튼튼한 기초와 훌륭한 전통을 마련하여주시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영원불멸한 업적을 생생하게 보여주고있다고 강조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로친선관계의 강화발전에서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계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두 나라사이에서 채택된 공동문헌들의 정신에 맞게 조로 친선관계를 증진하여 확대강화해나가기라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방침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의학과학을 발전시켜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위력을 더욱 높여 펼쳐나가자

## 가설, 착상 발표회를 적극 장려하여

### 함흥정형외과병원에서

위대한 병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의학과학을 발전시  
켜야 치료예방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갈  
수 있으며 보건사업을 높은  
과학기술적대우에 올려세울수  
있습니다.》

함흥정형외과병원의 의료인  
군들이 치료예방사업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두해전에 이들은 여러 분야의  
첨단기술을 요구하는 상박상단  
부진진공팔을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 환자치료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지난해에는 화상환자치료에서  
난문제 제되고있던 과학기술  
문제를 해결하고 임상치  
료에 받아들임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의 감사를 받아안은 영광  
을 지니었다.

최근 몇해사이만도 병원의  
의료진들속에서는 발명가, 창  
의고안자들과 학위소유자들이  
해마다 늘어났으며 새로운 치료  
방법들이 임상실험에 적극 도입  
되었다.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병원에서는 지난 시기 의료인  
군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 이 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해왔다.

여기서 의료인들이 증시한것은  
의사, 간호원들이 어떻게 하면  
년간 자질향상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집행하도록 하였는가  
하는것이였다.

이를 위해 이들은 의료인군들이  
그해에 수행해야 할년간 자  
질향상계획의 초안을 작성할 때  
부터 병원의 집체적지혜를 합치  
도록 하는데 힘을 넣었다.

이렇게 하니 의료인군들이 자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파적인 토  
론을 거쳐 병원의 해당 부서에  
제기하면 때에 비해 좋은 결실  
을 가져왔다.

하지만 의연히 문제가 되고있  
는것은 계획에 반영된 새로운  
치료방법들을 현실에 받아들이  
기까지에는 일정한 시일이 걸리  
고 임상치료를 부분에서의 성과도  
다져놓고보면 몇해째 일부 과,  
의료인군들의 범위를 크게 벗어  
나지 못하고있는것이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  
성일, 박영학, 김문선동무를 비  
롯한 이곳 의료인들은 해마다 가  
설, 착상발표회에서 우수하게  
평가된 가설, 착상안들을 다음

해년간 자질향상계획에 반영하  
고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  
책들을 세워나갔다. 이것은 의  
료인군들의 진지한 사색과 탐구  
열의를 더욱 불러일으켜 보다  
좋은 결실을 마련하자는데 그  
목적이었다.

가설, 착상발표회를 장려하여  
좋은 것은 또한 과학연구사업에  
낮을 적게 돌리던 일부 의료인  
들이 자신감을 가지고나서도록  
하는데서 그것이 힘있는 추동력  
으로 되였다는데 있다.

하지만 이들이 새롭게 작정하  
고 진행한 방법에서 좋은것이  
무엇이였는가.

과학자, 기술자들속에는 흔히  
가설과 착상에서 재치가 있는  
유형과 설정된 문제를 깊이있게  
파고들어 과학적인 방법으로 만  
드는데서 특기를 가진 유형이  
있다.

이 두가지 유형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어떻게 결합하는  
가 하는것은 단위사업의 성과와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방도로  
된다.

병원에서는 의사, 간호원, 간  
병원들이 참가하는 가설, 착상  
발표회를 해마다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도록 하는것과 함께 새로  
은 가설, 착상안이 나오면 임상  
경험이 오랜 의료인군들과의 협  
동으로 좋은 연구결과를 내놓으  
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내밀었다. 그후 이곳 의료인군

들속에서는 지난 시기에 비해  
없었던 새로운 의학과학기술성  
과들이 많이 나오게 되였으며  
임상치료를 도입하기가 빨라져 사  
람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  
할수 있게 되었다.

가설, 착상발표회를 장려하여  
좋은 것은 또한 과학연구사업에  
낮을 적게 돌리던 일부 의료인  
들이 자신감을 가지고나서도록  
하는데서 그것이 힘있는 추동력  
으로 되였다는데 있다.

하지만 이들이 새롭게 작정하  
고 진행한 방법에서 좋은것이  
무엇이였는가.

과학자, 기술자들속에는 흔히  
가설과 착상에서 재치가 있는  
유형과 설정된 문제를 깊이있게  
파고들어 과학적인 방법으로 만  
드는데서 특기를 가진 유형이  
있다.

이 두가지 유형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어떻게 결합하는  
가 하는것은 단위사업의 성과와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방도로  
된다.

병원에서는 의사, 간호원, 간  
병원들이 참가하는 가설, 착상  
발표회를 해마다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도록 하는것과 함께 새로  
은 가설, 착상안이 나오면 임상  
경험이 오랜 의료인군들과의 협  
동으로 좋은 연구결과를 내놓으  
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내밀었다. 그후 이곳 의료인군

로 진행하던 나날에 의료인군  
들의 자질향상에서는 많은 성과가  
이룩되었다.

가설, 착상은 아직 그 자체가 과  
학적인 확립은 아니지만 해당 분  
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이  
없는 내용은수가 없다.

해마다 년말이면 한가지이상  
의 새로운 가설과 기발한 착상  
을 제기하기 위해 애쓰는 과정  
에 이곳 의료인군들은 토론과  
논쟁의 방법을 도입하여 학습을 심화  
시키게 되였으며 해당 분야와 름  
분분야에 대한 깊이있는 지식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것은 임상실험에서 큰 은을  
나타냈다.

최근 몇해사이 실력이 있는  
의료인군들을 보충받은것도 아  
니고 물질기술적요소를 보다 든  
든히 갖춘것도 아니지만 치료예  
방사업에서 날마다 성과를 거두  
고있는 이곳 의료인군들에 대한  
취재파견에 우리가 다시금 제  
한점이 있다.

그것은 일군들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단위종업원들의 자  
질제고를 위한 방법론을 부단히  
탐구하고 실천해나갈 때 그 어  
디에서나 혁신적창상을 일으켜  
나갈수 있다는것이다.

본사기자 박경찬

## 참된 본분과 높은 실력

◇얼마전 본사편집국으로는 김경숙평양방직  
공장의 한 일군으로부터 편지가 왔다.

편지에서 일군은 과장 김춘만동무를 비롯한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 의료인군들의 현장의  
로봉사가 진행한 후 공장의 로동자들이 생산적  
창의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는데  
대하여 썼다. 일군은 특히 높은 의학과학기술을  
이룩해나갈 불같은 결의를 다진데 대해 감동깊  
이 전하였다.

뜨거운 인간애와 함께 높은 실력을 지니고 환  
자치료에 성실성을 더하는 의료인군들의 고  
결한 품도에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고마움을 가슴깊이 체득하고 부강조국건설에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치고있는 사람들을 이  
들뿐이 아니다.

창해부도인민병원의 의료진단에 의해 사경에  
서 구면된 경암세멘트공장의 로동자와 평안남  
도고려병원 의료인군들의 높은 의술과 지극한  
정성속에 건강을 회복한 복창군의 한 농장원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터마다에서 위  
운을 창조하고있다.

◇사회주의장성국가건설에 펼쳐나선 우리  
인민들에게 생의 활력을 더해주고 우리의 생활  
과 희망을 보다 분명하고 아름다운 세계로 지  
향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임무를 맡고있는 의  
료인군들에 있어서 오늘날 절실한 문제로 나  
서고있는 높은 실력이다.

위대한 병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의학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오늘 보건의료분야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자료를 의하면 의학은 과학기술문헌의 갱신  
주기가 빠른 학문들중의 하나로 되고있다고 한  
다. 20세기 중엽에만 해도 10년마다 두배씩

장성한 의학의 정보량은 20세기 말엽에 이르  
러서는 3년마다 두배씩 성장하였으며 지식경  
제시대인 오늘에 와서 그 성장속도는 더욱 빨  
라지고있다.

이것은 의료인군들이 인간생명의 기사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 모  
초를 아껴가며 피라게 노력해야 한다는것을 말  
해주고있다.

◇말은 초소는 서로 달라도 의료인군들의 실  
력에서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의료  
인군들이 대상하는 한사람한사람은 그가 누구  
이든 우리 사회에서는 하나같이 귀중한 존재인  
인민이기때문이다.

그 어느 단위에서나 상급병원을 따라가려고  
만 할것이 아니라 단숨에 세계적수준에 올라설  
데담한 목표와 배양을 안고 이약한 투쟁을 벌  
려나갈 때 치료예방사업에서 놀라운 기적을 창  
조할수 있다.

신의주시부진지구종합치료소의 의료인군들  
은 첨단기술에 의거하는 현대적치료실비율을  
갖추어놓고 추간관탈출증 등 추간관질환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잘하여 올해에만 하여도  
수십명의 사람들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의학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민족자존의  
정신, 최첨단과학기술을 지니고 줄기세포공  
기술과 생물소재에 의한 진단기술 등을 우리의  
힘, 우리의 자원, 우리의 기술로 하부품립 임상  
실험에 적극 도입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계속 박  
차를 가하여야 한다.

진국의 의료인군들은 치료예방사업을 단순한  
실무직사업이 아니라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병도의 손길에 마련된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  
월성을 더욱 빛내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라는 자각을 심장마다에  
새겨두고 의학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적수준  
을 향기 위해 분발하고 또 분발해야 할것이다.

##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 치료방법들

### 평안북도인민병원에서

위대한 병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현시기 의학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보건의료분야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으며 보건사업을 높은  
과학기술적대우에 올려세울수  
있습니다.》

평안북도인민병원의 의료  
인군들이 새로운 의학과학기술  
을 임상실험에 적극 받아들여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최근 몇해동안 이곳 의료인  
군들이 치료예방사업에서 거두고  
있는 대표적인 성과들을 소개  
한다.

고려의학과 신의학을 배합한  
중증취장염치료

중증취장염은 지난 시기 사람  
들속에서 난치성질환으로 널리  
알려져있었다. 한것은 외과적  
수술이 어려운데다가 수술후유  
증을 가지기 위해 값비싼 약  
을 오래동안 쓰는 경우에도  
진장을 회복시키기가 쉽지않  
지 않았기때문이다.

담석증치료과 과장 윤경일동  
무를 비롯한 이곳 의료인군들  
은 지극한 인간애를 지니고  
중증취장염을 우리 식의 방법  
으로 치료하기 위한 연구사업  
을 오래동안 힘있게 벌려 의  
료봉사활동에서 좋은 성과  
들을 이룩하였다.

지난해에 진행된 제15차  
전국보건부문 과학기술성과  
전시회에서 우수하게 평가된  
고려의학과 신의학을 배합한 이  
들의 중증취장염치료방법은  
수술을 하지 않으면서도 호전기  
일을 종전에 비해 훨씬 줄이게  
하는것으로 하여 의료인군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효과가 좋은 치료방법

가슴부위에 외상성타박을 당  
한 환자의 경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치료에서 여러가지 어려  
운 조건에 부딪치게 된다.

그중에서 타박으로 하여 생긴  
환자의 가슴과 특장강인의 피를  
제거하고 흉근 피막을 보충해야  
만 하는 수술은 시간을 다투는  
것으로 하여 치료에서 지극한  
난문제 제되고있었다.

의사 김경철동무를 비롯한  
흉부외과의 의료진단은 집체적  
지혜와 힘을 합쳐 환자의 가슴  
과 특장강인의 피를 그대로 리  
용하기 위한 치료방법을 내놓  
았다.

이 치료방법이 도입됨으로써  
시, 군인민병원들에서 파송  
되어오는 환자들인 경우에  
애로를 느끼고 하던 수술문제  
가 제기되지 않게 되였으며  
호전기간도 일정한대로 앞당겨  
지게 되었다.

실리가 큰 전신마취방법

척추수술이나 직장수술 등

과 같은 대수술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는데 있어서 전신마취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지난 시기 병원에서는 고압산소  
에 의한 인공호흡과 전신마취기  
를 통한 마취로 병원내 수술을  
보장하여왔다.

의사 장선봉동무를 비롯한  
마취수술과의 의료인군들은  
오랜 연구끝에 고압산소대신 그  
어디에나 흔한 대가지를 산소로  
대용하여 인공호흡을 진행할수  
있는 방법을 내놓았다.

임의의 장소에서 그 어떤 조  
건에서도 정맥내전신마취를 효  
율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하는  
이 방법은 경제적으로효과가 큰  
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끌  
고있다.

이밖에도 병원의 기능진단과  
의사 박영일동무를 전기를 쓰지  
않으면서도 위장환상상태를 진단  
할수 있는 위내시경을 제작하여  
환자치료에 이바지하고있으며  
신경과, 복부의과를 비롯한  
병원의 여러 과의로진단은 난치  
성질환치료에서 좋은 결실을  
마련하고있다.

약국장 박성진, 약제사 량정  
숙동무들은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치료효과가 빠르  
면서도 약물형태가 새로운 의약품  
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마지못하게서 다그쳐나가고  
있다.

본사기자



◎ 탐구의 보람 ◎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여러가지 난치성질환들을  
높은 수준에서 진단하기 위한  
오래동안의 연구끝에 드디어  
해결방법을 찾아낸 김일성종합  
대학 평양의학대학 유전의학  
연구소 연구자들의 열골마다  
에 웃음이 연가져있다.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때 좋은 연구성과를 이룩하  
기 위해서는 이이온 탐구의  
날과 밤은 정녕 그 열마였던가.  
비록 의학과학탐구의 길은  
험치 않으나 건강과 활력에  
넘쳐 웃음짓는 인민의 모습을  
그러므로 자기의 모든 지혜와  
열정을 장그려 버치는 이런  
연구자들의 헌신적노력이 있어  
우리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은 더욱 높이 발휘되고  
있는 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희락

## 첨단물파전의 앞장에서

### 수백명의 사람들이 대지를 활보

대퇴관절이 심히 파괴, 변형  
되면 사람들은 참기 어려운  
통통과 함께 생활상 큰 불편을  
느끼게 된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림상연구소의 연구진단은  
편만단위인공관절의 긴밀한  
연결에 여러 분야의 선진  
기술을 요구하는 질 높은 인공  
대퇴관절을 만들어 환자치료에  
이바지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오래동안 진행해왔다.

그 나날 교수, 박사 장창호  
동무를 비롯한 대학의 름상연  
구소 연구사, 병원의 의사들은  
인공대퇴관절환술에서 나  
는 어렵고 복잡한 기술적문  
제를 고심하여 노력끝에 탄탄  
히 해결하고 임상실험에 받아  
들임으로써 제대로 앞까지 걸  
어내었다.

특히 폐쇄된 혈관의 여러 구  
간에 대한 외과적수술을 동시  
에 진행하는 수술방법을 내놓  
은데 이어 그 성과로 더욱 공고  
히 함으로써 빠른 속도로 발전  
하는 우리 나라 심장혈관외과  
수술에서 성공하였다.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그들은 수십명의 사람들  
에게 광명을 안겨주었다. 이들  
중에는 몇몇해 두명이 거니  
실명되어 앞을 보지 못하다가  
이곳 의료인군들에 의하여 시  
력을 회복하고 조국보위호국  
다시 선 군인이었다.

본사기자

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아픔을  
모르고 대지를 활보하도록 하  
는데 기여하였다.

그러하여 이들은 얼마전  
나라의 최고과학기술상인  
2.16과학기술상을 수여받  
았다.

지금 병원에서는 창조적지혜  
와 힘을 합쳐 무릎관절기능재  
로 하여 애로를 느끼고있는 사  
람들의 건강회복을 위한 연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난치성혈관질환치료성과

수술적부담을 적게 주면서도  
치료기일을 훨씬 단축하는 이  
방법을 임상실험에 적극 받아들  
인 결과 과장 안성철동무를 비  
롯한 이곳 의료인군들은 수십  
명의 최종성상환자들을 기적  
적으로 소생시킬수 있었다.

수술에서 성공하였다.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그들은 수십명의 사람들  
에게 광명을 안겨주었다. 이들  
중에는 몇몇해 두명이 거니  
실명되어 앞을 보지 못하다가  
이곳 의료인군들에 의하여 시  
력을 회복하고 조국보위호국  
다시 선 군인이었다.

본사기자

## 독자의 편지

영에군인인 제가 이렇게 편  
을 들게 된것은 이 땅에 인간사  
랑의 화원을 펼쳐주고 세상에  
서 제일 좋은 보건제도를 마련  
해준 어머니 우리 당에 대한 한  
없는 고마움을 금치 못해서입  
니다.

책임일군인 홍영남동무를 비  
롯한 평양시건설관리국의 일군  
들은 국가적명예나 위는 날애  
나 때없이 저의 집에 들러 생활  
형편도 알아보고 제가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병원에 찾아  
와 보약제도 안겨주며 고투해주  
었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병원의 의사, 간호원들의 정성  
도 생각만 해도 눈물겹습니다.

## 한 가정, 한 식솔입니다

얼마전 병이 악화되어 제  
이곳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였  
습니다.

과장 강관희선생님은 당에서  
가장 영예로운 인민의 건강을  
빨리 회복시키자고 하면서 새  
로운 치료기구를 마련해주었  
습니다.

그뿐 아니라 의사 최은길,  
간호장 최희희동무를 비롯한  
의사, 간호원들은 친혈육의 정  
을 다해 명철날이면 벌식도 차  
려주고 건강회복에 좋은 보약도  
다 안겨주며 지성을 다하였습  
니다. 정말 그들은 의사, 간호원이  
기 전에 한식솔, 친혈육이였  
습니다.

한가정파도 같은 그들의 드

## 생이 다할 때까지 당에 충실하라

각지의 로당원들이 우리 당의  
부강조국건설수업을 실현하  
는데 힘있게 이바지할 애국충정의  
마음을 안고 사회와 집단을 위  
한 좋은 일들을 스스로 찾아  
고있다.

위대한 병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가시없이 당과 수령을  
진심으로 받들고 따라서 하  
자기 개인보다 당과 혁명을  
먼저 생각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후대들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할  
열정이야 합니다.》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안아오는 투쟁에서 선구  
자가 되어야 할 당원의 본분을  
자각한 의주군 홍남리에 살고  
있는 홍명선로인은 산림조성을  
위한 사업에 한몸 다 바치고  
있다.

10여년전 토지정리된 의주  
군 홍남리동농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산에 나무를  
많이 심는데 대한 가르침을  
주시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년로보장을 받고있던 그는 당의  
품속에서 원예기술자로 자란 내  
가 나이가 들었다고 하여 어떻  
게 편안히 휴식하겠는가고 하  
면서 나무모 키우는 일을 맡아  
할것을 결의해나섰다.

읍지구에 있는 자기 집을 내  
주고 안해와 함께 홍남리주변  
으로 나간 홍명선로인은 1정  
보의 양묘장을 조성할 목표를 내  
세우고 산기슭의 돌을 취내고  
진기들을 날라다부터 나무모  
를 기르며 지어놓았다.

천안군과 서흥군을 비롯한 여

러 지방까지 가서 수십종의  
수종이 좋은 나무종자들과 꽃  
목들을 구해다 자재를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오르신  
전망대주변에 고은 꽃나무들과  
수종이 좋은 나무를 심어 서  
지구역에 그윽한 꽃향기와 청  
신한 공기가 흘러넘치게 하  
였다.

그는 지난 10년간 양묘장에  
서 자재는 아름다운 꽃나무들  
을 금수산태양궁전 수목원에 보  
내주고 군에서 불과 가을에 나무  
심기를 할 때마다 수만그루의  
나무모를 보양해주어 홍남리  
과 주변의 산들을 푸르게 하  
는데 이바지하였으며 포전계  
에 3만그루의 버드나무를 심어  
농경지가 류설되지 않도록 하  
였다.

농촌살림집들에 과일나무  
심는데 대한 당의 정책을 받들  
고 북송나무와 추리나무를 비  
롯한 과일나무모를 재워워  
정성으로 집마다 나누어주고  
있는것을 비롯하여 지난 기간  
140만여그루의 각종 나무  
모들을 키워 여러 단위를 보  
내준 홍명선로인이야말로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당에 대한 충  
성을 다해가는 참된 당원의 본  
모이다.

당원이란 어떤 사람인가.  
이 물음앞에 실천으로 대답하  
나선 참된 로당원들속에는 온 나  
라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할  
데 대한 당정책관철에 앞장선 만  
수 동공리 10인민반에서 살고  
있는 문국원로인을 비롯  
10여명의 로인들도 있다.

문국원로인은 고난의 시기 별

각지의 로당원들  
을 빛내어가고있다.

10여년전 그는 같은 마을에  
서 사는 10여명의 년로보장  
자들에게 쌀로써 강성국가건설  
에 이바지하자고 호소하고 당조  
의 지도밑에 로인분조를 꾸  
웠다.

알곡생산의 첫 사업으로 새  
창기에 펼쳐나선 로인분조원  
들은 갈밭과 전갈 4.2정보를  
논으로 개간하고 해마다 수  
십의 진기들을 내어 육답으로  
만들었다.

자기들이 찾은 새땅을 험  
농장의 부침으로 등록하고 달  
곡생산계획을 받아 해마다 일  
수행하고있는 이들의 헌신적  
투쟁은 말없는 선봉으로 되어  
농장원들의 일곡생산에 힘  
고추추동하고있다.

조선군 수척리 8인민반  
에서 살고있는 리정삼로인은  
2007년에 년로보장을 받은  
때로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진기들을 모으기 위해 수십  
정보를 모으고 있다.

군구간 일군으로 사업하  
다 년로보장을 받았을 때 그의  
자식들은 집에서 편히 쉬라  
고 하면서 뒤에서 그를 마  
련해왔다.

하지만 그는 나라의 쌀독이  
넘쳐나야 인민의 웃음이 꽃  
피고 강성국가건설이 더욱  
다그쳐진다고 하면서 자기  
손으로 손발 구를 만들어  
진기들을 모으는  
일이 시작하였다.

고생을 사서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는 당의 승려, 당의 뜻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지 못하는 당원은 살아  
있어도 죽은것이나 다름없  
다 하며 서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

진기들을 리에서 모으는  
것만으로도 성취하지 않은  
리정삼로인은 10여명  
떨어진 읍에까지 나가  
진기들을 모아왔다.

그는 지난 한해에만  
20여명의 진기들을 유기  
비료공장에 보내주었으며  
7년 간 많은 진기들을  
모아 알곡생산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조선로당원들의 그 이  
름을 빛내어가는 참된  
로당원들속에는 자  
고있지는 신의주시  
평동 44  
인민반에 살고있는  
정천근로인도  
있다.

그는 여생을 당과 조국  
에 보탬을 줄수 있는  
일을 하는데  
바쳐왔다고 하면서  
2011년  
3월부터 200여m  
간판리를 스스로  
말아나섰다.

철길의 자갈추기작업을  
하고  
주변에 왜서리와  
잔디를 심고  
가꾸는데 매달같이  
철길을 나가  
진기들을 모으기  
위해 수십정  
보를 모으고 있다.

수백명 로당원들이  
당정책관  
철과 조국의  
강변영에 이  
바지하는  
좋은 일들을  
스스로 찾아  
고고있다.

당과 조국을  
위해 한몸바  
친 지난날과  
다름없이  
오늘도 당  
의 사상관  
철정, 당  
정책을 위  
전신분대  
기수로서  
투쟁한 생  
의 자  
육을 새겨  
가는 로  
당원들의  
심장마다  
에는 한  
성철의  
화답  
《당원들  
앞으로!》  
라는 우리  
당의 믿음  
넘친 부  
름이 높이  
올리고있다.  
본사기자 허명숙



높은 레전드기술을 소유한 학생들을 키워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사리원레전드전문학교에서- 본사기자 찍음



